

지역 춤축제의 담론 확장과 문화다양성 교육으로서의 전망 탐색*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홍타령춤축제를 중심으로 -

정 옥 희**

I. 서론	지역 춤축제
II. 지역 춤축제의 패러다임: 지역 축제, 춤축제, 국제축제의 교집합	IV. 결론
III. 문화다양성 교육의 관점에서 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본 연구는 국내 지역 춤축제의 담론을 확장하고 문화다양성 교육으로서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양한 지역 축제 중에서도 특히 춤을 주제로 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홍타령춤축제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제시하는 축제 형식이 발전해 온 사회적 맥락과 주요 논제들을 살피고, 문화다양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학제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지역 축제는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방자치제 출범이라는 두 요인이 결합된 문화적 산물이다.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이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축제, 이벤트, 예술제, 전시회 등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형태의 관광을 일컫으며, 지역 축제는 문화관광의 주요 유형으로 성장해왔다.¹⁾ 국내에선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정체성의 강화 및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축제가 연 1200회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축제 간의 중복성이나 비효율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지역 춤축제는 토착 춤문화의 직간접적으로 부각시킨 특성화에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살펴보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홍타령춤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지역 춤축제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997년에 시작되어 그 해 문화체육부의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축제 및 글로벌 육성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천안홍타령춤축제는 2003년부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2466)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okheejeong1@gmail.com

1) 문화관광은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관광으로 자연 경관이나 유적지 탐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관광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그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관광산업의 주류로 떠올랐으며, 미래의 10대 관광형태로 전망되고 있다. 인태정(2009), 한국 문화관광 연구의 현황과 사회학적 시론(試論). 『경제와 사회』 82, pp.266-293;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1), *Tourism 2020 Vision Vol. 7 Global Forecast and Profiles of Market Segments*, <https://www.e-unwto.org/doi/pdf/10.18111/9789284404667, 2019. 5. 1.>.

개최되었으며 2014년부터 6년째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되었다. 두 축제 모두 지역의 고유성과 브랜드화를 강조하면서도 세계의 다양한 춤을 통해 인류적 화합과 대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두 춤축제 모두 다양한 국가의 무용단을 선보이는 국제 민속춤축제 형식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과 연결된다. 다양한 문화의 춤 레퍼토리를 병치하고 감상하는 축제의 형태는 20세기 중엽에 활성화된 재현양식으로서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동시에 다문화주의적 가치를 담아내려는 욕구가 결합된 형식이다.²⁾ 따라서 국제 민속춤축제라는 양식은 문화의 다양성을 실체화하는 가장 대중적이고도 전통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치를 적절히 실현하고 있는가는 면밀히 따져볼 문제다. 특히 본 연구자는 국제 민속춤축제가 ‘부티크 다문화주의’ 담론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티크 다문화주의(boutique multiculturalism)란 미국의 인문학자 스탠리 피쉬가 제안한 개념으로 이국적인 문화를 나열하고 단편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타문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뜻한다.³⁾ 마치 부티크 의상실에 가서 다양한 의상을 입어보듯 타문화를 가볍게 맛보고 주류 패러다임으로 돌아온다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보다 오히려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 비슷하게 대두된 ‘관광객(tourist)’ 접근법의 개념 역시 학습자가 관광객처럼 문화를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며, 탈맥락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포괄적인 구조나 유기적 연계를 소홀히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⁵⁾ 종합해보면 지역축제 속 국제민속춤축제는 가장 대중적이지만 가장 피상적인 다문화교육의 전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각 문화를 환유적으로 대표하는 민속춤 자체가 대중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양식이라는 점에서 담론적 고찰이 요구된다. 무용학에서는 각 문화의 대표로 주어지는 민속춤(folk dance) 혹은 민족춤(ethnic dance)이 얼마나 문화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지니는지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⁶⁾ 민속춤은 흔히 구제 패러다임(salvage paradigm), 즉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이나 ‘유산’이 사라져간다는 시각에서 조망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선택, 변형, 창작을 통해 문화재 및 예술로 탈바꿈한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에 가깝다.⁷⁾ 나아가 민속춤은 예술춤-비예술춤, 서양-비

2) Ok Hee Jeong(2018), *The Discourse of International Folk Dance within Regional Festivals in Korea*, 『대한무용학회논문집』, pp.249-274.

3) Stanley Fish(1997), *Boutique multiculturalism, or why liberals are incapable of thinking about hate speech*, *Critical Inquiry* 23(2), pp.378-395.

4) 안혜리(2011), 다문화 미술교육의 현황과 대안: 동시대 미술을 통해 ‘타자(타자)’의 목소리 듣기, 『미술교육논총』 25(3), p.3.

5) G. W. Maxim(2003), *Dynamic Social Studies for Elementary Classrooms*(NJ: Prentice Hall), (김학희(2010), 부티크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한국 다문화교육에 대한 메타 지리적 성찰, 『다문화교육』 1, p.66 재인용). 부티크 다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은 김학희(2011)를 참고할 것.

6) 대체로 민족춤은 토착문화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오면서 참가자들의 재미를 위해 추는 춤을 일컫고, 민족춤은 한 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다른 집단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춤을 일컫는다. 그러나 Shay(2002)가 지적하듯 토착 환경에서의 춤, 국립의 전문예술단이 추는 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춤, 타자에게 자문화를 대표하기 위해 추는 춤, 그리고 타문화의 춤을 습득한 외부자가 추는 춤 등 다양한 민족춤이 ‘병치된 전통(parallel tradition)’을 형성하여 영향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민족춤이 문화재화 및 예술화되면서 변형되고 창조된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비서양-비예술춤의 개념이 민족춤-민족춤-세계춤으로 연결된다는 Foster(2009)의 관점을 받아들여 민족춤과 민족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민족춤으로 표기한다. Shay(2002), *Choreographic Politics: State Folk Dance Companies, Representation, and Power*. Middletown(Conn.: Wesleyan University Press), pp.17-22; Susan Leigh Foster(2009), *Worlding Dance—An Introduction*, *Worlding Dance*(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1-3.

7) Ok Hee Jeong(2017), *Nation Building of Folk Dance Festivals and Competitions: The Cases of Israel and South Korea*, *Research of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1(2), pp.1-19.

서양 간의 불평등한 위계 속에서 작동하며, 민속춤(folk dance) - 민족춤(ethnic dance) - 세계춤(world dance)으로 완곡하게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는 인종차별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유산이 건재하다.⁸⁾ 이렇게 볼 때 국제 민속춤축제는 화려한 의상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흥겨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화합하는 장이기보다는 민족, 문화, 정체성, 유산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욕망, 그리고 힘이 충돌하고 가시화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속춤을 둘러싼 논란들을 고려할 때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국제 민속춤축제가 그 자체로서 문화다양성을 실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실천되는 현장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지역 축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관광 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인태정(2009)은 국내 관광연구에서 사회과학적 관심이 저조하며, 기존 연구가 마케팅 및 경제적 효과, 개인의 심리적 동기 및 만족도 등 경제 편향적이고 개인 차원의 연구에 머무른다고 비판했다.⁹⁾ 이는 지역 춤축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천안흥타령축제와 안성국제탈춤페스티벌은 경제적 가치와 성공,¹⁰⁾ 참가자나 관람자의 만족도¹¹⁾ 차원에서 연구되었으나 인류학적 담론이나 문화다양성 교육의 측면에서 조망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1990년 로스엔젤레스페스티벌의 사례처럼 해외에선 여러 민족춤을 선보이는 축제가 다문화 교육의 대명사가 되어온 것을 고려해보면,¹²⁾ 국내의 지역 춤축제 담론이 문화다양성 교육의 담론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 있음은 의외의 현상이다. 이는 기존 다문화 관련 정책이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기관 등의 이주민관련 기관과 문화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기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는 분리된 영역을 구축했기 때문이다.¹³⁾ 선행연구에서도 이주민 집단의 축제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은 있어도 지역축제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은 없다는 점은 이러한 담론적 분리를 방증한다.¹⁴⁾ 그러나 지역축제는 특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에서 확대되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축제로 변모된 만큼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2017년 가을에 개최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7. 9. 29-10. 8)과 천안흥타령춤축제(2017. 9. 13.-9. 17.)를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두 축제를 지역축제, 춤축제, 국제축제의 교집합이라는 국제민속춤축제의 맥락에 위치시키며, 현지조사를 통해서

8) Susan Leigh Foster(2009), pp.1-3.

9) 인태정(2009), pp.269-271.

10) 한양명(1998), 안동문화의 세계화 추진전략: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97을 중심으로, 『안동개발연구』 9(1), pp.123-165; 이진교(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 '지역 활성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2, pp.69-104; 김경식·김주아(2014), 지역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제공연 개발 사례 연구: 세종대왕과 조정약수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 pp.15-22; 최중환(201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성장전략 연구: 공연부분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pp.129-136; 백현순(2016), 지역 춤 축제의 성공과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 흥타령 춤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1), pp.1-11.

11) 차수정(2013), "2012 천안흥타령춤축제" 방문자들의 행동의도인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무용연구』 31(1), pp.269-299; 오덕자·구광수·홍예주(2014), 춤 축제의 관람객 공연만족도 분석,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5), pp.87-103; 이성희·조남규(2015), 국제춤페스티벌 참가자들의 참여동기가 축제 이미지, 만족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2015년 천안흥타령춤축제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33(3), pp.283-308.

12) Barbara Kirshenblatt-Gimblett(1998), *Confusing Pleasures, Destination Culture: Tourism, Museums, and Herit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203-248.

13) 설진배·어승원·김연화(2013),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1), pp.109-149.

14) 강연화(2009), 이주민축제의 공연활동: 안산시 세계인의 날을 중심으로, 『인구교육』 2(1), pp.21-47; 박환영·황무원(2014), 몽골 나담 축제의 민속예술성과 현대적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36, pp.289-316.

두 축제의 구현방식을 생생하게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두 축제는 지역축축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두 축제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논문도 두 편이나 있다.¹⁵⁾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기술지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방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채집하고 엮어내고자 했다.

축제에 대한 현지조사는 여러 모로 어렵다. ‘문화적 만남’으로서의 현지조사에서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면,¹⁶⁾ 축제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복잡한 이벤트이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진교(2013)가 지적했듯 오늘날의 축제는 대규모화되고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목적으로 참여하기에 축제의 모든 면을 문화기술지로 조망하기가 힘들다.¹⁷⁾ 이에 한양명(2003)은 ‘전통문화적 기반 - 이념적 기반 - 조직적 기반 - 경제적 기반’을, 이진교(2011)은 ‘연행집단 - 운영조직 - 지역사회’이라는 접근들을 제시한 바 있다.¹⁸⁾ 본 연구자는 지역축제에서 일반 관람객이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문화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수집하는 한편 두 축제가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해외무용단의 존재가 지역 축제의 담론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의미부여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했다. 연구자는 안동축제에 2017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천안축제에 2017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축제장에서 종일 머무르며 일반 관람객의 자격으로 공연을 관람하고, 축제행사장을 관찰하고, 지역민 및 외부 관람객, 국내외 공연자와 대화를 나눴다. 또한 홍보책자 및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와 사후 인터뷰를 가졌다.

II. 지역축축제의 패러다임: 지역 축제, 축축제, 국제축제의 교집합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흥타령축제의 개요

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하 안동축제)은 민속의 보존과 발굴을 취지로 1968년부터 이어지던 ‘안동민속축제’가 여러 명칭으로 바뀌다가 지방자치제를 계기로 ‘안동국제탈춤축제’로 합쳐진 행사다.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에서도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모태로 한 페스티벌을 기획했으며, 안동의 다른 정체성, 즉 ‘양반’, ‘유교문화’, ‘사과’ 등과의 경합을 거쳐 이를 수렴하는 이벤트로 성장했다. 또한 안동축제는 1회엔 외부 이벤트 회사가 주도했으나 2회부터 지역 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보다 지역중심, 민주도의 행사로 나아가고 있다. 1회부터 큰 성공을 거두며 국제축제로 성장한 안동축제는 2006년 세계탈문화예술연맹(International Mask Arts &

15) 원은정(2010), 무용전문축제의 사회적 함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백현순(2016), 지역 춤 축제의 성공과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 흥타령 춤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1), pp.1-11.

16) 윤택림(200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홍천: 아르케), p.39.

17) 이진교(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 ‘지역 활성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2, pp.97-98.

18) 한양명(2003), 축제민속지 작성을 위한 구상, 『마을민속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민속원); 이진교(2011), 도시 축제의 실행과 참여집단: 일본 삿포로 ‘요사코이 소란 마츠리’의 민속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진교(2013), p.98 재인용).

Culture Organization)을 창립하여 탈춤을 특화시키고 있다.

안동축제는 지역축제가 지닌 여러 기능과 목적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민이 하루 모여 즐겁게 노는 여가적 목적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구경거리, 지역 동아리나 문화예술단체가 발표할 수 있는 장, 나아가 지역의 경제산업과 문화예술공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축제 이전에 지역 기획사나 이벤트 시설업체가 하나에 불과했다면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20여개로 늘어났다. “국내 유일 100% 지역민의 힘으로 만드는 축제”이자 “축제 예산의 70% 이상을 지역에 투자”¹⁹⁾함을 강조하는 것은 안동축제가 지역적 구심점을 지니며 오랜 투자와 연구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낸다.

2017년 안동축제는 공간적으로 볼 때 이벤트 중심인 탈춤공원, 민속축제 위주로 선보이는 하회마을, 그리고 부대행사가 이루어지는 시내와 전통시장으로 나누어졌다. 축제는 10여개의 무대에서 500여 회의 공연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12개국 14개 공연단(라트비아, 대만, 태국, 볼리비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과 국내 탈춤 국가무형문화재 단체 12개팀, 그리고 120 여개의 아마추어 단체가 출연했다. 주요 행사로는 개폐막식, 세계탈놀이경연대회, 탈춤을 소재로 한 아마추어 마스크 버스킹 대회, 쉬운 탈춤 동작을 배워 춤출 수 있는 비탈민 타임(Vitalmin Time)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각종 먹거리와 전통놀이, 전통혼례식,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며 상권활성화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나. 천안흥타령축제

천안흥타령축제(이하 천안축제)는 1987년 ‘천안삼거리 흥타령문화제’으로 시작했다. 2002년 ‘천안삼거리문화제’로 바뀌면서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테마를 내세우지 못하다가 일본의 노래와 춤 축제인 ‘요사코이 소란마쓰리’를 벤치마킹하여 2003년 춤경연 위주의 ‘천안흥타령축제’로 개편되어 2014년부터 6년 연속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되었다.²⁰⁾ 흥타령 민요를 중심으로 주제곡 및 로고, 캐릭터, 춤을 내세워 축제 전반을 브랜딩하지만, 이와 동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춤이라는 포괄성을 내세운다.

천안축제는 개폐막식 외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는 경연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축제의 주공간인 삼거리공원엔 다섯 개의 크고 작은 무대가 있었고, 전국춤경연대회에는 130개의 팀이, 국제춤경연에는 13개국 공연단이 참여했다. 거리 퍼레이드,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전국대학치어리딩대회, 솔로엔듀엣컴피티션, 막춤대첩 등이 모두 상금이 있는 경연이고, 이 외에 프린지공연과 각종 체험행사와 부대행사가 이루어졌다.

천안축제는 2012년 국제춤축제연맹(FIDAF)을 조직하여 세계의 춤축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²¹⁾ 연맹은 대륙별로 위원장과 나라 대표를 두고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단체들을 추천받거나 검증한다. 또한 각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연맹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페스티벌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19) 안동시·안동축제관광재단(201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종합안내서, p.10.

20) 백현순(2016), p.5.

21) 국제춤축제연맹 홈페이지, <<http://www.fidaf.net/>, 2018. 12. 12.>.

다. 지역 춤축제의 패러다임

안동축제와 천안축제는 각각 ‘탈춤’과 ‘흥타령’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두 축제가 내건 목표를 살펴보면(〈표 1〉) 표면적 차이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국제 행사로서 기능하며, 지역주도적으로 운영하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는 크게 ‘지역축제’, ‘춤축제’, 그리고 ‘국제축제’로서의 기능이 교집합하면서 매우 유사한 형식의 축제로 구현됨을 알 수 있다.

〈표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흥타령축제의 목표

안동축제의 목표	천안축제의 목표	공 통 점
열정적인 감성과 탈춤의 생명력이 넘치는 축제	천안 삼거리의 흥을 전국적 축제로 승화	지역의 정체성 강조
글로벌 축제로 세계인에게 감동과 신명을 주는 축제	축제의 세계화 및 천안 이미지 글로벌 홍보	국제 행사의 위상
지역의 힘으로 만들어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축제	시민 주도적 참여와 소통하는 축제 실현	지역 주체성
열정적인 감성과 탈춤의 생명력이 넘치는 축제 전통의 자산을 토대로 창작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축제		지역 춤 문화 부각

1) 지역축제로서의 특성

김선기(2003)가 강조하듯 현대사회의 지역축제는 정치·행정적, 경제적, 경영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효과를 피하며, 안동축제와 천안축제 역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화합, 지역홍보, 지역자치의 가치를 강조한다(〈표 2〉).²²⁾

〈표 2〉 지역축제로서의 특성 비교

	안동축제	천안축제
지역화합	지역창작극, 시민화합한마당, 탈놀이대동난장 안동민속축제(씨름대회, 길놀이), 자유참가작 단체의 공연	읍면동화합한마당,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초청기획공연, 프린지 공연
지역홍보	비탈민 타임, 똑블리, 마스크 버스킹 대회, 시내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	기업홍보부스, 대학생서포터즈 ‘흥이나리’, 천안농산물 홍보마당
지역자치	행사 운영 및 수익사업을 지역 내에서 해결	행사 운영 및 수익사업을 지역 내에서 해결

지역화합은 지역축제의 가장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이다. 축제는 일상에서 벗어나 모여 즐기는 시간과 공간이다. 이는 ‘읍면동화합한마당’이나 인기가수 초청공연처럼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기는 프로그램이 되, 지역축제가 전문화되면서 일회적, 소모적이라 비판받으며 억제되는 부분이기도 하다.²³⁾

따라서 오늘날 지역축제에서 지역화합은 일회성 프로그램보다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 단체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로 구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안동축제에선 ‘자유참가작’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밴드, 밴드, 가수, 지역 복지관, 학교나 사설단체 등 91개에 달하는 단체들이 축제장과 시내 곳곳에 마련

22) 김선기(2003),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개발전략』(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이진교(2013), p.88.

된 크고 작은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다. 이런 공연은 매년 축제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축제의 주제나 지역성과는 크게 상관없는 각종 연례행사(수석 및 분재전시,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 마당, 보디빌딩대회, 노인의 날, 안동의 날, 우리소리 축제 등)가 축제의 일부로 개최되며 축제의 규모를 키우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역 홍보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축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지역의 문화관광산업과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전통적인 기능 뿐 아니라, 축제의 테마를 관람객에게 각인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관객 참여형으로 풀어낸 춤 동작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비탈민 타임), 행사도우미나 외국 무용단들이 정해진 춤을 추도록 하는 것(뚝블리, 흥타령)은 모두 축제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에 해당된다.

지역 자치와 상생은 지역을 위해 축제를 운영함을 의미한다. 축제 운영을 타 지역 전문업체에 의뢰하기보다 자체적으로 꾸려나가고, 시설과 판매를 지역에서 입찰함으로써 축제의 비용과 수익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축제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위해 생활공간과는 떨어진 공간(삼거리공원, 탈춤공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기에 축제 기간에 오히려 소외되는 시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안동의 전통시장 및 시내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상인의 삶을 표현하는 탈놀이, 지역 연극단이 참여한 플래쉬몹, 시내에 디스플레이 설치, 관객참여 공연)이나 천안의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과 도심 한복판에서의 퍼레이드는 모두 축제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지역에 골고루 전파시키려는 의도다.

이처럼 지역축제로서의 특성은 두 축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축제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드러낸다. 지역축제는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 즉 인구고령화 및 인구 감소, 기업투자 유치의 어려움과 산업기반 부재, 서울과의 사회문화적 격차,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판로 부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나아가 일상에서 벗어난 이벤트로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축제가 가시적이고 복합적인 메가이벤트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2) 춤축제로서의 특성

안동축제와 천안축제는 ‘춤축제’로서 가지는 특성 역시 매우 유사하다. 춤 행사는 크게 경연과 비경연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경연은 메인 무대에서 각 팀이 준비해 온 레퍼토리를 겨루는 국제경연과 그 외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연으로, 비경연은 축제의 크고 작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객 체험으로 나누어진다.

가) 국제춤경연의 형식

두 축제에서 국제춤경연은 공통적으로 a) 국내부/해외부의 구분, b) 국내부의 연령별 구분(학생/일반/시니어부; 학생/일반/흥타령/실버), c) 장르 구분 없음, d) 전통/창작의 구별 없음을 띤다. 이에 따라 춤축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국내부와 해외부가 구분되고, 국내부는 다시금 연령별로 구분된다. 즉 해외 무용단은 국제춤경연에서 해외부에만 속하고, 나머지 국내의 다양한 참가팀은 이들과 겨루지 않는다는 뜻이다.²⁴⁾ 이러한

구조는 두 영역이 매우 다른 맥락과 방식으로 운영됨을 암시하고, 따라서 문화적 만남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아예 다른 명칭으로 따로 경연하거나 한 무대에 번갈아 서더라도 따로 채점과 시상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구경하는데서 머무른다.

둘째, 국내부가 장르가 아닌 연령별로 구분되고 성인층이 2~3개로 나누어진다는 점은 이 행사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노년층을 세분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부(초중등고)와 실버부(61세 이상)가 비슷한 참가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노령화된 지역인구분포를 반영한다. 이에 대해 천안축제의 사무국장은 “연령대가 맞춰지면 표현범위가 비슷하다. 어린 나이는 테크닉 위주, 어른은 감정이나 표현력 위주로 구성하기에 스포츠처럼 연령대 구분이 가능하다”²⁴⁾고 설명했다.

셋째, 춤 경연은 장르 구별이 없고 전통춤과 창작춤의 구별도 없다. 안동축제는 ‘탈’의 착용만 의무화하여 ‘탈놀이’라는 명칭으로 모든 장르를 받아들이고, 천안축제 역시 2017년 공식 명칭에서 ‘민속춤’이라는 명칭을 삭제했다. 경연에선 한국무용, 현대무용과 같은 예술춤 장르가 벨리댄스, 치어리딩, 스트리트 댄스, 태권도무 등의 장르와 동등하게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춤축제는 문화적 정통성보다는 축제로서 즐기는 효과에 더 기울어졌다. 경연은 축제기간 내내 메인무대에서 예선, 본선, 결선의 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 이루어지며, 결선 무대는 폐막식과 맞물려 이루어지기에 화려함과 관심도를 집중시킨다.

한편 국내의 무용단이 준비해 온 레퍼토리를 겨루는 경연 외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연이 있다. 천안축제에서 이루어지는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솔로앤듀엣컴피티션, 막춤대첩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연이다.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가 무용 전공생이 주로 참가하는 전통적인 형식의 경연이라면 솔로앤듀엣컴피티션은 전공생과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무용수들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겨루는 독특한 경연이다. 한편 막춤대첩은 축제 방문객이나 무용수들이 현장에서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고, 춤의 테크닉보다는 현장에서 관객의 호응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경연의 엄격함보다는 유희성이 강하다.

나) 비경연 춤 프로그램

경연 외에 춤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a) 해외 무용단의 공연, b) 국내 소규모 단체들의 공연, c) 시민참여형 이벤트로 나누어진다.

첫째, 해외 무용단들은 경연에서 선보이는 레퍼토리 이외에 2분, 5분, 10분 단위의 레퍼토리를 준비하여 춤춤이 짜인 일정에 따라 공연한다. 예를 들어 천안축제에서는 타 지역(서울, 세종, 부천)에서의 홍보공연, 지역 내 타 장소 공연(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환영리셉션, 축제 개막 퍼레이드, 축제 행사장 내에서의 공연, 각종 컴피티션에 참여한다. 안동축제 역시 비슷하며 경연 이외에 정기공연이 상대적으로 많다. 탈춤마당에서 하루 7회 1시간 단위로 공연이 이루어지며, 한국 탈춤 13팀, 해외 탈춤 13팀, 마당극 6팀이 고루 공연한다. 이렇다보니 공연, 이동 및 리허설 이외에 자유시간이 적은 편이며,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관객이나 다른 무용단과 교류할 기회가 적었다.

둘째, 국내 무용단체들은 주로 사설학원이나 동아리, 문화센터를 통해 조직되어 형식적 제한 없이 공연하는 방식으로 무대에 섰다. 중장년으로 구성된 동아리나 지역 내 소규모 공연단이 무대에 섰으며, 규

24) 안동축제는 ‘세계탈놀이경연대회’를 국내부/해외부로 구별하고, 천안축제는 국내부는 ‘전국춤경연대회’로, 해외부는 ‘국제춤경연대회’로 명칭부터 구별한다.

25) 이성희 천안흥타령축제 사무국장 인터뷰, 2017년 11월 28일, 서울 대학로.

모가 큰 무용학원에선 퍼레이드나 경연에 참여하였다. 특히 축제마다 치어리딩이나 태권도무 등을 공연 하는 초등학교생들의 프로급 단체들이 눈에 띈었는데, 학부모들은 자녀의 무대 경험과 자신감 함양을 위해 무대에 설 기회를 찾아 지역축제들에 참가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고등학교 스트리트 댄스 동아리 학생들은 지역의 작은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 세계 경연에 나가거나 대학입학을 위한 스펙으로 삼는다고 했다. 이처럼 지역축제는 아마추어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지역 무용단체들의 존립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셋째, 안동축제와 천안축제 모두 관람객에게 축제의 테마춤을 배우거나 볼 기회를 제공한다. 안동은 탈춤 따라 배우기(총 14회, 30분/회: 하회별신굿), 탈탈라 댄스 따라 배우기(하루 2회, 5분/회), 비탈민 타임(탈춤 공식댄스 배우기)(총 27회, 30분/회)을 운영하며 관객의 소통을 넓히고자 했다. 천안축제는 천안삼거리 민요 ‘홍타령’을 각색한 안무를 개발하여 국내의 무용단체들 및 홍타령 서포터즈에게 가르치고 퍼레이드나 개폐막식에서 추게 했다.

춤축제로서 안동축제와 천안축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공연자의 분리가 두드러진다. 다채로운 춤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연자들이 실제로 공존하며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은 행사는 천안축제의 ‘막춤대첩’이었다. 즉흥성, 현장성, 유희성이 강하며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유머와 골계미가 강조되는 이 이벤트에서 일반 관객들과 해외 무용단의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서 서서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겨루었다. 이때 참가자들은 특정 국가나 문화의 대표가 아니라 개인의 장기와 매력을 뽐내는 주체로 참가했다.

3) 국제축제로서의 특성

천안축제와 안동축제는 모두 ‘국제축제’이다. 이때 ‘국제성’은 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나) 외국 단체의 공연, 다) 상업화된 국제성으로 구현된다. 이들 축제가 구현하는 국제성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국가화된 형태로 유통되고 실천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축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며, 이는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축제 홍보자료나 신문기사는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즐긴다’는 포맷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러나 실제 행사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드물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이 상징적 존재라면, 국제춤경연에 초청된 해외 무용단체들은 춤축제의 ‘국제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무대 안팎에서 목격되는 이들의 물리적 존재와 화려한 의상과 춤은 축제 관람객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목격하게 해주었다.

한편 경연에 초청된 해외 단체들 이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공연가들도 소수 존재했다. 천안 축제의 경우 ‘음식의 거리’ 및 시장에서 축제 기간 내내 공연하던 ‘안데스 공연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종 지역 축제 및 행사에서 필요한 외국인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다.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에 따르면 해외공연단을 초청하기 어려운 각종 축제에 외국인 공연자를 파견하는 업체가 존재하고, 이들은 음식부스와 무용 및 음악 공연을 축제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하여 계약한다고 했다.²⁶⁾ 이 외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1쌍을 초청하여 한국 전통혼례를 치루는 이벤트 역시 한국전통문화를 세계인에게 소개한다는 명분을 가지적으로 드러냈다.

26) 왕지민 세계문화예술기획 대표 전화인터뷰, 2017년 10월 14일.

셋째, 두 축제에서 ‘국제 축제’로서의 양상은 물질화되고 상업화된 방식으로도 구현되었다. 천안축제에는 텐트들이 ‘ㄷ’자로 늘어선 ‘음식의 거리’가 있었다. 지역 식당이나 특산 음식을 파는 곳과는 별도로 ‘세계음식’을 테마로 한 공간이다. 각 텐트마다 현수막에 특정 나라의 면적, 인구, 수도, 언어를 소개하고 고유 음식을 팔았다. 그러나 여러 행사장이나 장터를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는 터키인들의 케밥 텐트를 제외하곤 그 국가와 음식, 판매원의 관계는 밀접하지 못했다. 판매원들은 ‘국제문화교류’라는 완장을 팔에 두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나 단체인지 설명하지 못했고 그저 지역 축제를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는 외식업체라고 했다. 닭꼬치나 소세지, 회오리 감자 등 손에 들고 먹기 편한 음식을 위주로 구성한 후 음식과 국가를 인위적으로 연결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즉 닭꼬치는 일본, 소세지는 미국이라는 도식은 이미 이 음식들이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단골메뉴가 된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또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각종 물품을 파는 텐트들도 있었는데, 소매상 업체가 판매하는 스카프나 티셔츠, 장신구 등으로 ‘국제성’이 손쉽게 구현됨을 알 수 있었다.

III. 문화다양성 교육의 관점에서 본 지역 춤축제

한국의 다문화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해 왔다.²⁷⁾ 대체로 결혼이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들은 국가 주도로 빠르게 실천된 장점이 있는 반면 일회성 재정지원에 따른 단기적 프로그램 및 연계프로그램의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²⁸⁾

다문화교육의 이념과 정책이 지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으로 떠오른 개념이 문화다양성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는 한 사회나 국가에 민족, 성, 계급, 국적, 종교, 라이프스타일, 취향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을 뜻한다. 다문화주의가 ‘1국가=1문화’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문화를 고정적이고 본질적으로 보았다면, 문화다양성은 문화를 국가나 민족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본다.²⁹⁾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이주민 등의 소수자에 대한 동화정책 및 온정주의적 지원에 집중되었다면, 문화다양성은 소수자와 다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반편견적, 상호존중의 가치를 제고할 것을 강조한다.

문화다양성 교육의 지향점을 고려할 때 각국의 무용단을 초청하여 그 나라의 민족춤을 선보이는 국제 춤축제 형식은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답습하기 쉽다.³⁰⁾ 서론에서 언급했듯 단편적인 일회적인 부티크 다문화주의의 특성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개최되는 지역 축제로서 이루어지는 국제 춤축제 형식은 다문화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문화다양성 교육의 패러다임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양한 주체가 저마다 자유롭게 참여하는 지역 축제는 춤축제의 관습과 문화다양성의 담론을 연결하고 생생하고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략적

27) 김학희(2010), 부티크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한국 다문화교육에 대한 메타 지리적 성찰, 『다문화교육』 1(2), p.65.

28) 설진배·어승원·김연화(2013), pp.109-149.

29) 한경구 외(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과제).

30) Anthony Shay(2006), *Choreographing Identities: Folk Dance, Ethnicity and Festival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Inc.), pp.9-14.

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적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기 보다는 지역 춤축제와 같은 기존 행사가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체화되고 실천될 수 있는 교육의 장(場)으로 조망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 춤축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유독 낙관적인 상황에서 본 장에서는 안동축제 및 천안 축제에서 다양한 춤들이 선택되고, 병치되고, 수행되고, 수용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문화다양성 교육으로서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 민속춤의 정통성과 창조적 변용

민속춤을 기반으로 하는 무용단은 모두 ‘정통성’과 ‘창조적 변용’ 사이에서 균형잡기를 한다. 춤이 발생된, 그러나 사라지고 있는 토착적 문화와 형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의 맥락과 취향에 맞게 변화시킬지는 무용단의 철학을 반영하는 문제다. 20세기 중반 국제춤축제의 양적 팽창과 맞물린 민속춤의 레퍼토리화, 무대화, 상업화, 경연화로 인해 민속춤의 변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토착적 맥락에서 제거되고 레퍼토리화 되는 과정에서 춤이 지녔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면서 민속춤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더 이상 민속춤이 아니게 된다는 한탄이 자주 들렸다.³¹⁾

민속춤 패러다임에서 정통성이 존재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의 인위성과 한계성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속학은 전통춤의 권위를 내려놓고 창작춤에 대한 불신을 거두는 태도를 취한다. 민속학자들은 더 이상 민속(folklore), 가짜민속(fakelore),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민속(folklorismus)의 구분이 쉽지 않을뿐더러 유용하지 않다고 인정한다.³²⁾ 만들어진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정통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안동축제와 천안축제는 해외공연단의 춤을 ‘민속춤’이라 명시하지 않는다. 천안축제는 ‘세계 무용단’이 참여하는 ‘국제춤경연’으로 명명하여 춤 자체에 대해선 국제성 이외에 어떤 것도 한정하지 않으며, 안동축제의 경우 탈을 구실로 삼아 모두 ‘해외 탈춤’ 혹은 ‘탈놀이’로 명명한다. 민속춤 용어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속춤의 ‘정통성’보다 ‘창조적 변용’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천안축제에서 해외팀 초청을 담당한 이성희 사무국장은 국제춤축제에서 ‘민속’이나 ‘전통’의 한계에서 탈피해야 함을 주장했다.

민속은 관객과 눈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 어차피 현 세계가 글로벌인 이상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에 우리와 교류하던 나라에 다음 해에 가보니 대나무 바구니로 부채춤 파도를 만들더라. 부채춤에서 카피한 것이다. 이게 문제인가? 우리는 문제없다고 본다. 그건 그들의 자유의지이다. 그들의 춤을 민속무용으로 볼 수 있다. 경연이건 아니건 괜찮다고 본다. youtube, skype, facebook 등 바로바로 교류가능한데 흡수 영향은 당연한 것 아닌가.³³⁾

위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 전통춤/창작춤의 구별을 없애고 민속춤의 명칭까지 없앤 두 축제의 방향

31) Nancy Lee Chalfa Ruyter(1995), Some Musings on Folk Dance, *Dance Chronicle* 18(2), Aspects of Dance: Essays in Honor of Selma Jeanne Cohen, p.269.

32) Linda Dégh(1984), Uses of Folklore as Expressions of Identity by Hungarians in the Old and New Country,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21, p.188.

33) 이성희 천안흥타령축제 사무국장 인터뷰, 2017년 11월 28일, 서울 대학로.

성은 민속춤 안의 다양한 양상과 관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고도 비판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각 단체가 춤의 정통성이나 창조적 변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지녔는지 충분히 소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축제 현장에서 관람객은 이 춤이 어느 정도의 정통성에 기반을 둔 춤인지, 혹은 자유롭게 창작한 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참가팀과는 달리 해외팀은 항상 국가별로 구분되고, 따라서 그 나라의 전통춤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해외 무용단의 공연은 관객들이 해외 민속춤에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깨거나 대면하지 못한 채 국내 관람객들이 기대했던 것, 즉 화려하고 이국적인 볼거리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해외 무용단들은 관람객으로부터 철저히 대상화된 존재이고, 그리하여 우리 안의 다양한 정체성을 덮어줄 구실로 작용했다.

일례로 안동축제의 경연 결선에서 말레이시아 팀은 커다란 황금탈을 머리에 쓰고 전구를 달아 불을 밝혔다. 음산한 음악과 검은 눈화장 때문에 ‘죽음을 표현한 것인가’라고 막연히 생각했으나 행사장에서선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결선무대 사회자는 전통춤인지 창작인지, 어느 지역 춤인지, 어떤 주제나 컨셉을 표현한 것인지 소개하지 않았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들이 축제장을 돌아다닐 때 행인들은 “아이고 무서워!”라며 반응했다. 그러나 실제 그들에게 물어보니 전혀 어두운 주제가 아니었고 전구 소품 역시 밤에 이루어지는 경연에서 보다 눈에 띄기 위해 창의적으로 단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로 천안축제에 참가한 세이셀 팀은 인터뷰에서 다른 참가팀들은 민속춤을 추지만 자신들은 컨템퍼러리댄스를 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팀 역시 완전히 민속춤이 아니라 창작춤이었으며, 그들의 컨템퍼러리댄스 역시 민속춤으로 오해받았다. 유일한 아프리카 참가국으로서 밀짚을 엮어 만든 치마 의상이나 골반을 강하게 움직이는 동작들이 한국 관객들에겐 지극히 전형적인 아프리카 춤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타문화의 춤을 관람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대상과 주체의 거리를 좁히기 힘든 설정이다. 그 거리를 좁히고 대상과 나를 동등하게 바라보기 위해선 그 대상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 문화와 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없이는 어떠한 판단도 해석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속춤에서는 정통성과 창조적 변용 사이에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가 중요한 실마리이다. 안동 축제와 천안축제는 민속춤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급진적인 프로그래밍이지만 각 단체에 대한 맥락화가 부족하였기에 관람자의 능동적 감상을 도와주지 못하였다. 관람자가 낯선 춤에 대해 막연히 정통성을 부여하고 대상화시키지 않으려면 그 춤의 창조적 변용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국가 단위의 정체성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문화를 국가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다.³⁴⁾ 즉 한국사회가 단일한 문화적 특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며,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가별 정체성을 강조하는 춤축제의 기본 포맷은 문화다양성의 전제에서 어긋난다. 여러 국가가 참가했다고 강조하면 할수록 각 국가 안의 다양성은 앞박해진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34) 한경구 외(2015), p.25.

안동축제는 12개국 14팀(일본 2, 중국2), 천안축제는 14개국 14팀을 초청했다. 최대한 다양한 국가의 무용단을 초청하고 ‘한 국가에서 여러 팀이 요청했을 때 가장 좋은 공연 할 수 있는, 색다른 팀을 선발한다’³⁵⁾는 기준은 ‘1국가=1문화’이데올로기에 부합한다. 참가국의 숫자는 곧 ‘국제 축제’로서의 권위와 명분을 쉽게 가시화시킨다.

공연 프로그래밍은 국가별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참가팀을 소개하는 리플릿이나 소책자 역시 국가별로 분류되고 무용단의 명칭, 지역, 레퍼토리 특성보다도 국가명을 크게 표기하여 강조한다. 국가별 분류는 행정적 편의를 위함이었지만, 각 단체는 ‘다양성을 위한 다양성’의 일부로 파편화되고 동질화된다. 동일한 팀들을 초청했음지라도 다양한 관점과 분류법-예를 들어, 손동작인 많은 춤, 커플춤, 농경문화 춤-으로 묶어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국가 단위의 정체성이 지닌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 단위 정체성의 포맷에서 각 국가 안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국제축제로서의 지역축제가 내세우는 ‘한국’은 ‘전통’의 정체성에 경도되어 있다. 민속문화유산이 풍부한 안동축제의 경우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비롯하여 국내 무형문화재 탈춤을 내세우고 있으며, 천안축제의 경우 천안시립무용단이 제시하는 한국 전통춤 레퍼토리로 표현된다. 여기서 오늘날 지역사회의 현실은 찾기 어렵다. 실제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민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축제 전반에 걸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향교, 다도, 전통 혼례, 설화로 내려오는 영웅과 지역 전설 등, 현대 삶과 동떨어져서 박제된 과거와 전통이 현재의 다양함을 뒤덮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안동은 별신굿, 선유줄 불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나 고등어, 짬뽕과 같은 음식문화가, 천안은 흥타령과 능소전과 같은 설화와 호두과자 정도로 지역정체성이 가시화된다. 두 축제가 제시하는 전통의 모습이란 놀랄 만치 닮아 있다.

3. 축제의 일탈성과 효율성

축제는 놀이의 대표적인 예시다. 호이징아는 놀이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놀이의 첫 번째 특징은 ‘자유’이고, 두 번째 특징은 ‘실제의 삶’에서 일탈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특징은 ‘장소의 격리성과 시간의 한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³⁶⁾ 축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일상생활로부터 일탈(liminoid)했다는 감각을 극대화시킨다.

지역 축제의 현장에서 놀이는 ‘신명’, ‘난장’, ‘흥’의 명목으로 시청각적 자극으로 구현된다. 그 중에서도 밤에 이루어지는 개폐막식과 퍼레이드는 일탈성의 결정체다. 거대한 설치물, 거대 인형과 퍼레이드 깃발,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댄스 음악, 화려한 조명과 의상, MC의 농담과 추임새가 참가자들을 자극하며 모두가 함께 춤추는 난장으로 마무리된다. 커다란 이벤트가 드문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은 이러한 자극에 만족감과 결속력을 표현했다.³⁷⁾

그러나 자극적인 일탈의 이면에는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있다. 각 축제는 정밀하게 짜인 스케줄표에 따라 운영된다. 정해진 시간에 특정 집단이 무대에 서고 이동한다. 특히 퍼레

35) 이성희 천안흥타령축제 사무국장 인터뷰, 2017년 11월 28일, 서울 대학로.

36) 천현순(2010), 독일의 축제문화와 지역의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4(3), pp.469-484.

37) 천안 거리퍼레이드를 관람하는 시민 인터뷰. 근방에 사는 시민들은 퍼레이드가 잘 보이는 카페 창가나 계단에 자리 잡고 구경했다. 소감을 묻자 여러 명이 지역에선 이런 규모의 이벤트가 적으니 색다르고 가족이나 연인끼리 나들이할 계기가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дна 개폐막식처럼 이목이 집중된 이벤트에선 수십 명 단위의 공연단체들이 2분 단위로 등퇴장한다. 난장은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어 끝나고 공연자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르고 다음 팀에게 자리를 비켜준다. 축제장 안팎으로 정밀하고 능률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축제의 테일러시스템(Taylor system)³⁸⁾라 할 만하다.

지역축제는 합리화된 놀이다. 그런데 합리화된 놀이에선 이질적인 존재들이 뜻밖의 방식으로 조우하기 어렵다. 축제가 우리끼리 이미 아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이질성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려면, 그리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품으려면, 관람객의 기대에 늘 부합해선 안 된다. Clifford (1986)는 축제가 박물관 전시에 비해 덜 엘리트적이고 덜 정돈된 것(messy)이라고 묘사했다.³⁹⁾ 현대사회에서 정돈되지 못한 것은 비합리적이라 치부되지만 말끔히 정돈된 스케줄 표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동등하게 교류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축제는 덜 정돈된 공간으로 남을 때 힘을 가진다. 크고 작은 무대공연에서 어빙 고프만이 말하는 ‘무대 후면’을 드러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이 연례민속축제에서 무대 공연이 지닌 연출적 효과를 최대한 배제하고 날 것으로 제시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명 없이, 단상 없이, 때론 의상 없이 공연하고, 춤에 대해 공연자가 스스로 말하고 관객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⁴⁰⁾

천안축제에서 공연한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포크댄스 그룹은 춤도 초보적이고 순서를 잊어 버리거나 음악을 다시 트는 등 무대운용도 서툴렀다. 그러나 한 시간의 무대를 그들 스스로 춤과 해설로 이어가면서 각 춤의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에서 포크댄스를 춘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다. 우스꽝스럽게 보이던 무용수가 어느덧 외국 포크댄스를 즐기고 교류하는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할 무렵 뒷자리의 젊은 부부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들렸다. “나이 들면서 저런 춤 취도 될 것 같아. 큰 움직임도 아니고. 배울까?” 한편 아르헨티나 팀은 인터뷰에서 그들이 추는 Gafieira 지방의 삼바가 카니발에서 추는 요란한 삼바와는 달리 여유롭고 멋있는 춤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지만 경연 무대에서 관객들은 그들을 보고 “어우 느끼해!”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얀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든 남성들이 여성들을 에스코트하는 것이 춤의 포인트였으나 화려한 기교를 선보이던 다른 팀에 비해 평가절하 되었다.

두 사례를 곱씹어보면 춤 현상만 보고 그 문화를 이해하려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한 무용인류학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춤이 비언어 신체활동이기에 만국공통어처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춤 역시 인지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⁴¹⁾ 더구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춤축제에선 춤 단체와 장르를 다양하게, 특히 해외 무용단 위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천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8) 테일러시스템은 미국 경영가 W. Taylor가 주장한 과학적 경영관리법으로 근로자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간, 동작 등을 합리화하고 표준화한 방식이다.

39) James Clifford(1986), *On Collecting Art and Culture*, J. Clifford(ed.), *The Predicament of Culture*(Cambridge: Cambridge), p.213.

40) Heather A. Diamond and Ricardo D. Trimillos(2008), Introductio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21(479, Winter), pp.3-9.

41) Brenda Farnell(1999), It goes without saying—But not always, *Dance in the Field: Theory, Methods, and Issues in Dance Ethnography*, Theresa J. Buckland(ed.)(UK: Macmillan Press LTD), pp.145-160.

4. 축제 큐레이터십의 부재

국제민속춤축제 기구인 CIOFF는 연례보고서(2014)에서 축제의 메인이벤트인 퍼포먼스와 경연 외에 부가 프로그램인 키퍼런스, 전시, 체험, 퍼레이드, 전통 음식, 어린이 놀이, 어린이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그 국가의 문화나 종교의식을 배울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⁴²⁾ 이 기준에서 볼 때 안동축제와 천안축제는 메인이벤트와 부대행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지향하는 목적, 즉 공연자가 관객과 토론하고, 우정을 나누며,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에는 많이 미흡해 보인다. 축제를 구성하는 이벤트가 너무 많고, 너무 효율적으로 작동되며, 축제로서의 유희성이 강조된 나머지 배려나 소통, 교육의 차원은 간과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축제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공연에 대한 해설이 적다는 점과 공연 이외에 관객과 소통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두 축제가 제공한 종합안내서에는 각 무용단의 연혁이나 작품내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한 장의 리플렛이나 배경막에 띄운 자막이 전부였다. 안동의 탈춤공연장 공연은 30분의 관객 등퇴장 시간을 간격으로 한 시간 단위의 공연이 이어졌기에 사회자의 해설도, 관객과의 대화도 불가능한 구성이었다. 또한 몽고, 인도네시아, 태국 아티스트가 협업하는 문화동반자사업 공연(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Performance Group)이 있었는데, 현장 스케줄에선 아무런 설명이나 해설 없이 ‘CPI’라고만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없었다. 축제 이후 구한 두꺼운 양장본 안내서엔 설명이 수록되어 있지만 현장 관람객으로선 구할 수 없었다.

해설의 부재, 큐레이터십의 부재 속에서 때론 해설이 있는 경우도 문화적 이해보다는 편견을 강화하기도 했다. 두 축제 모두 경연이나 폐막식, 퍼레이드 등에서 전문MC가 사회를 맡았는데, 각 팀의 소개에 있어 이해를 돕는다고보다는 현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주력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춤단체 순서에서 당시 유행하던 TV 프로그램인 <윤식당>(tvN, 2018)에 발리가 나왔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단체에 대한 소개를 대신한 경우도 있었다. 자카르타와 발리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성의하고 왜곡된 소개이다. 국내관람객에게 그나마 친숙한 발리를 언급하는 것과 무용단이 내세우고자 했던 자카르타 문화 사이의 간극은, 지역 춤축제들이 축제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강해야 할 면이 많음을 드러낸다. 뷔페식 나열, 혹은 수퍼마켓형 진열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각 단체와 그들의 춤에 대한 맥락화, 그리고 스스로 소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줄 때 비로소 타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역시 가능하다.

42) CIOFF(2014), *Annual Report of National Sections*, p.12, <http://www.cioff.org/documentation/CIOFF%20Annual%20Report%202014%20draft%202018_12_1.pdf, 2018. 12. 1.>.

IV. 결론

지역 춤축제의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여러 나라의 춤을 소개하면서 ‘1국가=1문화’의 이데올로기나 이국적인 여흥에 대한 탐닉에 빠지지 않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축제와 춤이 이미 일상에서 분리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지역춤축제와 문화다양성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일까? 지역축제가 해당 지역에서 이미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본 연구는 지역 춤축제가 문화다양성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국내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흥타령축제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관람객이 경험하는 문화다양성을 구현해냈다. 안동축제와 천안축제는 축제 테마의 차별성보다는 모두 지역축제, 춤축제, 국제축제로서의 공통점이 두드러지며, 특히 해외 무용단을 초청한 경연과 공연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안동축제나 천안축제가 구현하는 ‘국제민속춤제’는 다문화교육의 기본틀이다. 각국의 민속춤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여러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은 가장 기초적이고 손쉬운 다문화교육법이다. 그런데 이들 축제를 다문화교육으로 환원해볼 때 낮은 수준의 교육에 머무른다는 것이 문제다. 두 축제 모두 기본적인 축제의 틀에 타문화의 춤을 부가적이고 피상적인 방식으로 덧붙인다. 예를 들어 안동축제는 탈착용을 의무화한 탈춤의 형태로, 천안축제는 민속춤의 전 장르를 수용하여 춤경연을 개최했다. 그런데 두 축제에서 해외팀은 자신들의 레퍼토리에 마스크를 더하고 국내팀 역시 지역마다 성황리에 운영되는 태권도춤, 배리 댄스, 치어리딩, 스트릿 댄스 단체들이 마스크만 더하여 동일하게 참가함을 알 수 있었다. 축제마다 비슷한 단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이 제시하는 다양성이 축제에 핵심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치 현수막을 덧댄 닭꼬치나 타코야끼 판매대처럼,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다양성에 그치는 것이다.

이를 다문화교육의 패러다임으로 환원해보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교육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학자 Banks(2016)는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 통합하는 다문화교육 방법으로 기여적, 부가적, 변혁적, 사회적 행동의 네 가지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위의 축제들이 해외무용단을 활용하는 방식은 주류 문화의 규정과 가치는 고수한 채 타문화의 긍정적인 부분만 단편적으로 덧붙인다는 점에서 기여적이고 부가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⁴³⁾

연구자는 지역 춤축제들이 민속춤의 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하면서도 이를 인식할 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문화 다양성을 국가 단위의 정체성으로 고착화시킨 점, 축제를 합리화된 놀이로 정비한 나머지 문화적 교감이 이루어질 기회가 적다는 점, 그리고 축제 전반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고려한 큐레이터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역 춤축제가 유의미한 방식으로 문화다양성을 실천하기 위해선 내국인 관람자와 해외 공연단체 뿐 아니라 이주민까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며 사회나 춤에 대한 주류 관점을 제고하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모범 축제’로 여겨지는 지역 축제들은 거대한 규모와 복잡다단한 구조를 지닌 복합적 이벤트이다. 춤

43) J. A. Banks(2008), 『다문화교육 입문』,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임정수(역)(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6), pp.69-72.

을 둘러싼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지역 축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세계의 다양한 춤을 제시하는 지역 춤축제는 예술춤에 경도된 국내 무용계의 균형을 맞추고,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지역 춤축제가 문화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내실을 갖추고 담론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역 춤축제는 무용학, 인류학, 민속학, 교육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로서 각 학문분과의 담론들을 연결시켜야 한다. 민속춤은 무용학, 인류학, 민속학 등에서 매우 중요한 토픽이지만 분과별 논의에 갇혀 제각각의 담론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민속춤이 경연화, 문화재화, 예술화를 거쳐 페스티벌의 레퍼토리로 소비되는 현상은 민속학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학이나 인류학적 논의로 확장되지 않았음은 학문분과 간의 괴리를 명백히 드러낸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개인적 동기에 편향된 지역축제에 대한 논의를 교육적, 사회적, 담론적 차원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무용학의 입장에서는 예술춤에 경도된 무용학 담론에서 민족춤 및 춤축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교육학적으로는 특정 기관의 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문화 교육의 담론을 보다 보편적이고 확장적으로 바라보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춤축제를 문화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 재조명 해보는 것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재검토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역 춤축제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일시적이고 비일상적인 공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전달되는 문화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체험을 통해 각인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현장으로서 반성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맥락에서 재검토된 지역의 춤축제는 보다 균형 있고도 강력한 방식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기(2003).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개발전략』.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홍천: 아르케.
- Banks, J. A.(2008). 『다문화교육 입문』. 모경환·최충욱·김명정·임정수(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6.
- Buckland, Theresa J.(ed.)(1999). *Dance in the Field: Theory, Methods, and Issues in Dance Ethnography*. UK: Macmillan Press LTD.
- Clifford, James(ed.)(1986). *The Predicament of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ster, Susan Leigh(ed.)(2009). *Worlding Danc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Kirshenblatt-Gimblett, Barbara(1998). *Confusing Pleasures, Destination Culture: Tourism, Museums, and Herit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ay, Anthony(2002). *Choreographic Politics: State Folk Dance Companies, Representation, and Power*. Middletown, Conn.: Wesleyan University Press.
- Shay, Anthony(2006). *Choreographing Identities: Folk Dance, Ethnicity and Festival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Inc.
- 강연화(2009). 이주민축제의 공연활동: 안산시 세계인의 날을 중심으로. 『인구교육』, 2(1): 21-47.
- 강익모(2010). 수문장교대식의 관광자원화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4(1): 9-18.
- 김경식·김주아(2014). 지역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제공연 개발 사례 연구: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 15-22.
- 김규호(2012). 문화유산의 재해석과 관광자원화. 『문화정책논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학희(2010). 부티크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한국 다문화교육에 대한 메타 지라적 성찰. 『다문화교육』, 1(2): 63-79.
- 남근우(2006). 민속의 문화재화와 관광화: ‘강릉단오제’의 포클로리즘(folklorism)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3: 205-253.
- 남근우(2009). 민속의 경연과 예술화. 『한국문화연구』, 36: 289-326.
- 박세중(2014). 문화관광 연구의 이론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모색. 『관광연구저널』, 37-49.
- 박환영·황무원(2014). 몽골 나담 축제의 민속예술성과 현대적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36: 289-316.
- 백현순(2014). 한국 민속춤과 문화 대중성. 『우리춤과 과학기술』, 24: 77-99.
- _____(2016). 지역 춤 축제의 성공과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 흥타령 춤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1): 1-11.
- 설진배·어승원·김연화(2013).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1): 109-149.
- 안혜리(2011). 다문화 미술교육의 현황과 대안: 동시대 미술을 통해 ‘타자(他者)’의 목소리 듣기. 『미술교육논총』, 25(3): 1-26.

- 오덕자·구광수·홍예주(2014). 춤 축제의 관람객 공연만족도 분석.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5): 87-103.
- 유목화(2015). 문화관광축제 선정 제도가 지역축제에 미치는 영향: 남원 춘향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5: 389-423.
- 윤광봉(1993). 「전국민속경연대회」의 반성과 전망. 『비교민속학』, 10: 7-20.
- 이성희·조남규(2015). 국제춤페스티벌 참가자들의 참여동기가 축제 이미지, 만족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2015년 천안흥타령춤축제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33(3): 283-308.
- 이진교(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 ‘지역 활성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2: 69-104.
- 이호선(2011). 지역 특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상품 브랜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171-181.
- 인태정(2009). 한국 문화관광 연구의 현황과 사회학적 시론(試論). 『경제와 사회』, 82: 266-293.
- 정옥희(2018). The Discourse of International Folk Dance within Regional Festivals in Korea.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6(1): 249-274.
- 차수정(2013). “2012 천안흥타령춤축제” 방문자들의 행동의도인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무용연구』, 31(1): 269-299.
- 천현순(2010). 독일의 축제문화와 지역의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4(3): 469-484.
- 최종한(201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성장전략 연구: 공연부문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129-136.
- 한경구 외(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과제.
- 한양명(1998). 안동문화의 세계화 추진전략: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97을 중심으로. 『안동개발연구』, 9(1): 123-165.
- Clifford, James(1989). The others: Beyond the ‘salvage’ paradigm. *Third Text*, 3(6): 73-78.
- Dégh, Linda(1984). Uses of Folklore as Expressions of Identity by Hungarians in the Old and New Country.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21: 187-200.
- Diamond, Heather A. and Ricardo D. Trimillos(2008). Introductio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21(479, Winter): 3-9.
- Fish, Stanley(1997). Boutique multiculturalism, or why liberals are incapable of thinking about hate speech. *Critical Inquiry*, 23(2): 378-395.
- Jeong, Ok Hee(2017). Nation Building of Folk Dance Festivals and Competitions: The Cases of Israel and South Korea. *Research of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1(2): 1-19.
- Kaufman, Ayalah(1951). Indigenous and Imported Elements in the New Folk Dance in Israe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Folk Music Council*, 3: 55-57.
- Ruyter, Nancy Lee Chalfa(1995). Some Musings on Folk Dance. *Dance Chronicle*, 18(2): 269-279.

국제춤축제연맹 홈페이지. <<http://www.fidaf.net/>, 2018. 12. 12.>.
 안동시·안동축제관광재단(201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종합안내서』.
 왕지민 세계문화예술기획 대표. 전화인터뷰. 2017년 10월 14일.
 이성희 천안흥타령축제 사무국장 인터뷰. 2017년 11월 28일. 서울 대학로.
 천안문화재단(2017). 『천안흥타령춤축제2017 세부추진계획』.
 CIOFF(2014). Annual Report of National Sections. <<http://www.cioff.org/documentation/CIOFF%20Annual%20Report%202014%20draft%20202.pdf>, 2018. 12. 1.>.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1). *Tourism 2020 Vision*. Vol. 7 Global Forecast and Profiles of Market Segments. <<https://www.e-unwto.org/doi/pdf/10.18111/9789284404667>, 2019. 5. 1.>.

논문투고일 2019. 2. 27
 심사일 2019. 5. 18
 심사완료일 2019. 6. 10

The Discourse of Regional Dance Festivals as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Jeong, Ok He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pands the discourse of regional dance festivals in Korea, and examines its value as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mongst various festivals, I conducted ethnographic fieldwork at two major dance festivals in Korea, Andong Maskdance Festival and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in 2017. I observe that, while radical in eliminating the distinctions between folklore, fakelore, and folklorimus, these festivals are rudimentary in presenting cultural diversity due to the emphasis of ‘1 nation= 1 culture’ ideology. In order to function as an arena for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regional dance festivals should adopt the concept of curatorship that concerns what people experience in those events and how disparate subjects can interact with and understand each other.

Keywords: Regional dance festival(지역 춤축제), International folk dance festival(국제민속춤축제), Folk dance(민속춤), Ethnic dance(민족춤), Cultural diversity education(문화다양성 교육)